

예산안 시한 D-3...쟁점은 '공무원 증원'

3야 "與 양보 없으면 부결" 여 "일자리 꼭 필요 양보 못해" 정의장 부수법안 25건 지정 내달 1일 본회의 자동 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을 28일로 나흘을 남겨두고도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야당은 예산안 부결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해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왔다"며 "심지어 지난해 탄핵 정국 때도 대응적 차원에서 시한 내에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부·여당의 양보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예산안 처리 힘 모음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응적 차원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여야는 전날까지 탐색한 각 당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이날부터 본격적인 절충점 찾기를 시도했다. 여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하는 '2+2+2회의'와 함께 국회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등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소위'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산안 쟁점 타결을 모색했다.

2+2+2회의에서는 세출과 관련해 ▲공무원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중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 5349억원과 2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

정자금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제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여전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안 꼭 짊어 반대하고 있다"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중점 과제로 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부분 야당에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문제(일자리 안정자금)는 정

말 어렵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50년간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절충안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다"고 말해 야 3당의 예산 공조가 이뤄질 가능

새 대법관 안철상·민유숙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자 중 안법원장과 민 고법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

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임명제청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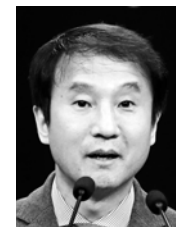
경남 합천 출신인 안철상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정통 법관이다.

서울 출신 민유숙 고법 부장은 여성 법관으로 사법부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경력에 있으며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靑, 새 정무수석 한병도 비서관 승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 현 정부비서관(50)을 임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하고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부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의와 소통에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발표했다.



한 수석 임명은 지난 16일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물러난 지 12일 만이다. 한 수석의 기용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등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깔려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정가라운지

이개호, 천일염 인증기준 개선 '소금산업진흥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8일 천일염의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천일염 인증제는 우수천일염인 증·생산방지천일염인증·천황천일염인증 등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인증기준이 엄격해 인증산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3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인증기준을 1종으로 통합, 천일염 인증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의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



을 신설, 심의회 위원회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천일염 인증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2015년 12월 2일 신안군 소재 염전 1개소가 우수천일염인증 취득한 이후 높은 인증기준으로 인해 추가 등록이 없는 실정"이라며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며 "인증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국당, 내달 12일 원내대표 경선

이주영·나경원·유기준 등 거론

자유한국당은 내달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12일 이후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긴장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가 13~15일 일본을 방문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애초 홍 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인 12

월 9일 이내에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7일 경선을 주장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경선을 한다면 당이 국회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원내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회기가 끝난 이후인 15일에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국당 투톱이 원내대표 경선 시점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이주영(5선)·나경원·유기준·조경태·홍문준(이상 4선)·김성태(3선)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개헌특위, 권력구조·지방분권 격론

한국당 "권력 개편 선행돼야"...與 "지방분권 독립 영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28일 전체 회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의 주제인 지방분권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형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개편은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은 "분권형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개헌의 명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방분권

과 권력구조 개편은 독립적인 영역"이라며 "지방분권 개편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등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수평적 권한 분산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개헌안에 현재보다 진일보한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방분권은 광역생활권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경진, 국가 출연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치의학분야의 종합적인 컨트론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 진료비 2위, 치아우식 7위로 전체 질환 중 10위권 이내에 2개의 치과



질환이 차지하는 등 치과외과 수요는 점차 증가 추세"라며 "하지만, 2012년 정부투자 보건료로 연구개발비 1조 1043억 원 중 치의학 연구 관련 지원은 2.3%에 불과한 259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산업 또한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사범	음악 학 과	5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예능	실용음악학과	4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일반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길 36